



함께 걷자! 프로젝트
일본성공회 동일본 대재해 피해자 지원

소식지
제 21 호
2013년 6월 발행

“함께 걷자! 프로젝트” 2 년의 활동을 마치고 그리고 Part II 에

“함께 걷자!”의
지금까지 ①

많은 기도와 봉사에 감사

“함께 걷자! 프로젝트”대표
일본 성공회 수좌 주교
홋카이도 교구 주교
나다나엘 우에마츠 마코토



2011 년 3 월 11 일 오후 2 시 46 분, 동북 지방에서 관동, 홋카이도까지 광범위한 지역을 흔들, 대지진과 그것에 기인한 엄청난 규모의 쓰나미는 우리의 상상과 이해를 훨씬 넘는 대참사를 가져 왔습니다.

일본 성공회에서는 대지진 발생 직후부터 다양한 형태로 구호·지원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교통, 연락, 통신 수단도 없고, 피해 상황도 파악 못하고 있는 가운데, 각 교구에서는 식량과 일용품, 담요 등을 독자적인 루트로 재해지에 날랐습니다. 세계 성공회에서도 지원팀과 구호 물자를 보낸다는 제안도 많이 받았습지만, 일본 성공회로서는 그 시점에서는 이재민을 위한 지원 활동을 위해 기도해 달라는 메시지를 전했고, 실제로 세계의 교회가 이를 위해 기도 하셨습니다.

2011 년 5 월에는 지금까지 각 교구 및 단체 등이 개별적으로 혹은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던 구호·지원 활동이 “함께 걷자! 프로젝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피해 지역 여러 곳의 지원 센터나 외국인 지원등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그 일을 위해, 일본의 교회에서뿐 아니라, 해외에서 실로 많은 헌금이 전해졌고, 또 구원 지원 물자가 도착, 많은 자원 봉사자들이 피해 지역에 와 주셨습니다. 대한 성공회를 비롯한 해외에서도 수좌 주교와 성직자 신도들이 찾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지지해 주신 가장 큰 것은, 여러분의 기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성공회라는 작은 교단이 “함께 걷자! 프로젝트”에서 이 같은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국내, 해외의 여러분의 기도와 지원에 의한 것이었다는 것에 지금 다시 한번 감사하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함께 걷자! 프로젝트”는 출범 당시부터 2 년이라는 기간을 정하여 활동해 왔습니다. 그것은 한정된 예산과 인력속에서 책임있는 활동을 하기 위한 필요였습니다. 올해 5 월에 2 년을 마칩니다. 그러나 피해 지역에서는 아직도 많은 이재민이 도움을 필요로 하십니다. 또한 도쿄 전력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 사고에 의한, 피해자는 향후 전망이 전혀 서지 않는 가운데, 공포와 불안 속에서 불편한 생활을 강요 당하고 있습니다. 일본 성공회는, 이러한 이재민과 함께 향후에도 걸어 가고 싶다고 생각하며, 지금까지의 “함께 걷자! 프로젝트” 활동 종료 후에도, 새로운 틀을 생각하면서, 도호쿠 교구로서의 역할에 협력하며, 원전 관계는 관구적인 활동을 시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의 기도와 지원과 이해를 부탁 드립니다.

“함께 걷자” “경의를 표하고”의 것 -프로젝트 본부장으로·또 도호쿠 교구 주교로서-

“함께 걷자! 프로젝트”본부장
도호쿠 교구 주교
요한 가토 히로미치



동일본 대지진 발생 후, 또한 “함께 걷자! 프로젝트” 발족으로부터 전국의 교회, 관계 시설들, 성공회 관계 제 학교 여러분의 엄청난 지원과 기도, 그리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지진 발생 후, 각 교구에서 세워진 “대책 본부” 등이 수좌 주교의 소집하에 회의, 일본 성공회 전체의 노력으로 이 대지진에 대처하기로 결정하고, 상 의원회의 승인을 거쳐 4 월 29 일에 센다이에서 열린 제 1 회 운영위원회가 이 프로젝트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부흥 지원”이 아니라, “함께 걷자” 라는 명칭이 정해진 것도 이때였습니다. 또한 활동의 슬로건에 “어려움을 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함께 걷습니다”라고 조금 바뀐 문구도 이때 논의에서 나온 것입니다.

일본 사회의 근대화, 경제 성장 속에서, 대도시와 지방의 여러 격차가 생겼고, 동북뿐만 아니라, 그러나 역시 동북은 주변화 되어 온 역사를 가진 땅이 아니었는가. 해일의 피해는 처절한 것이며, 그때부터 마을은 “서터 거리”가 되었습니다. “부흥”은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동시에 그 땅에는 특유의 풍토, 문화, 사람들의 긍지가 높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과 가치관에 관련된 것 같은 것이 아닐까. 원전 방사능에 대한 것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가렛 파위의 시 “발자취와 발자국”을 떠 올리고 있습니다 (“고통과 시련의 때에. 발자국이 하나 일 때, 내가 너를 업고 걷고 있었다”). 저 자신은, 일본 성공회 선교 150 주년 예배에서 캔터베리 대주교 로완 윌리엄스 대 주교의 '맨발의 선교'라는 설교를 경청했습니다. 어쨌든 피해 지역의 역사와 문화, 상황, 생각을 존중하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 보면서, 피해자와 함께 일본 성공회 각 교구가 함께, 그리고 주와 함께, 한걸음 한걸음 걸어 가고 싶다는 바람으로 정해진 명칭이었습니다. 결코 교회 중심의 지원만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러나 역시 지역속에서 오랜 세월 뿌리해온 동북 교구 교회 및 유치원을 근거로 하면서, 지역분들에게 얼굴이 보이는 관계를 소중히 만들어 간 것, 그것도 프로젝트의 일관된 자세였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장애인 시설과 채일·체일 외국인들과의 접점은 동북 교구의 큰 약점이었습니다. 일본 성공회 안의 그 동안의 풍부한 경험이 그러한 측면을 보충해 주었습니다.

일본 성공회로서 처음으로, 하나의 대참사에 교단으로서 일한 사건이며, 많은 분들의 힘, 기도와 계속적인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함께 첫 경험으로 역부족, 기대에 따르지 못한 부분도 종종 있었다는 것 등,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는 “함께 걷자! 파트 II”로 “기어 체인지”를 하면서, 동북 교구는 지역 교회를 역시 거점으로 하면서 꾸준히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기도와 일을 계속하길 바라며, 또한 “원전 · 방사능 후쿠시마”에 관한 것은 재차 일본 성공회로서 대처하게 됩니다. 계속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피해 지역을 방문해 주시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함께 걷자! 파트 II”에 <1> 토호쿠 교구로서

“함께 걷자! 프로젝트”프로그램 디렉터
이재민 지원 센터 신치 센터장
토호쿠 교구 이소야마 성 요한 교회 부흥 프로젝트 위원장
사제 프란시스 하세가와 키요즈미



대지진 발생으로부터 2년 수개월 동안, 오나하마, 신지, 나토리, 센다이, 이시노마키, 미나미산리쿠, 게센누마, 오후나토, 가마이시에서 “함께 걷자! 프로젝트”의 스탭과 자원 봉사자들은 시간의 경과와 함께 요동 치는 감정에 피해를 입은 분들이나 마을 주민과 함께 보내 왔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마음이 통한 배려나, 서로를 소중하게 마음으로 대화를 하고, 차를 마시고, 수예를 하거나 흙에 땀을 흘리거나, 서로 웃고, 서로 울며 함께 시간을 공유해 왔습니다. 뒤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전국 교회 여러분이 보내 주시는 지원 물자뿐만 아니라, 보내 주시는 생각과 기도에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한편, 지자체가 한껏 부흥 사업의 추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그 속도는 결코 빠르다고 생각되지 않는 것이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예를 들어, 센터 신치에서 국도 6호선을 사이에 두고 좌우(동서) 2개소의 산지에서 집단 이전 대상 택지 조성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조성 공사 완료 및 주택 건설은 연내에서 내년까지 걸릴 같습니다만, 그 광경은 가설에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 바로 희망의 빛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호쿠 교구는 6월부터 “함께 걷자! 토호쿠(가칭)”로 이재민 지원을 계속하겠습니다. 작은 직원 태세로 사무실은 그대로 (센다이 기독교회 토호쿠 교구 주교 좌성당·교구 회관이 준공 될 때까지) 사용합니다. 그곳에서 토호쿠 교구에 맞는 규모와 지원 내용을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오나하마, 신지, 가마이시 등의 지원은 지역에 있는 교회, 유치원, 보육원의 기능을 소중히 하면서 피해자와 연결하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가마이시 피해자 지원 센터는 개소 2주년인 8월말에 폐쇄하고, 가마이시 신애 교회와 신애 유아 학원을 거점으로 전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나아 가겠습니다. 신지의 센터 신치는, 앞으로 1년간은 변함없이 읍민 여러분과 함께 걸어 갈 것입니다. 오나하마는 성 디모데 교회와 성 디모데 유치원이 있고, 또한 원전 사고로 피난한 사람들에게 차분히 동행하는 자세를 관철해 갈 것입니다. 후쿠시마현 피난민 지원 활동과 연계하면서 각 지역에서,서로를 존중하면서, 예수님께 격려 받으며 매일을 서로가 지지해 갑니다.

그런데, 신지 마을·이소야마 성 요한 교회·구 후지 유치원 순례를 센터 신치에서 다루어 왔습니다. 매월 11일 대지진 기념일로 사망자·행방 불명자의 광명과 평안을 기원하는 중요한 날로 정하고, 모인 사람들과 피해자를 둘러보고, 별세자를 기억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행위는 피해를 입은 분들뿐만 아니라 방문자와 자원 봉사자들에게도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순례”는 앞으로도 메인 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3월 11일을 잊지 않기 위하여, 여러분께서는 골절을 보고, 작은 순례의 정보를 제공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희생된 이소야마 성 요한 교회 예배당 재건은 꼭 이룩해야 합니다. 재건 예배당은 구 건물의 자재, 비품을 많이 재사용 재창조 될 것입니다. 그것은 동일본 대지진을 기념한 메모리얼 위령 진혼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 실현을 위해 기도하고, 요구해 가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의 모습은 가능하면 정기적으로 어떻게든 전하고 싶습니다. 동시에 교구 회관에 동일본 대지진 자료실을 정돈해서 갑니다.

여하튼 여러분의 한층 더 이해와 협력을 거듭해 부탁드립니다.

“함께 걷자! 파트 II”에 〈2〉 원전과 방사능에 관한 특별 프로젝트

원전과 방사능에 관한 특별 프로젝트 운영위원회
사제 디모데 노무라 키요시



거대한 지진과 해일은, 도쿄 전력 후쿠시마 제 1 원자력 발전소를 덮쳐, 심각한 손상을 주었습니다. 그로 인해 훗날 린 방사능은 후쿠시마 현에 그치지 않고 국내외 대기, 토양, 해양 등을 광범위하게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2 년이 지난 지금도, 여러면에서 사람들의 생활과 삶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함께 걷자! 프로젝트”의 활동 방침의 두 번째로 “원전 사고와 그 영향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정보를 수집·발신하고, 국내외에 대해 책임 활동합니다”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있었습시다만, 이 원전 사고와 방사능 오염에 대해, 결코 도망 칠 수는 없는 과제라는 인식을 공유해 왔습니다. 2 년이 지난 지금도, 피해자를 둘러싼 상황은 더 심각해져 왔으며, 한편, 피해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는 관심이 없어지고 있는 현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원전의 위험성과 방사능 오염이 수습된 것은 아닙니다. 일본 성공회로서는, 지금 후쿠시마에서, 일본에서, 원전과 방사능 둘러싸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는 사실을 국내외 교회에 전하며 계속된 역할과 책임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원자력 발전의 위험은 종래부터 지적되어 왔습니다. 일본은 히로시마 · 나가사키의 피폭을 경험한 나라로서는, 세계 최초로 방사능 오염의 심각성에 대해, 또 원자력의 위험성에 대해, 말하고 전해야 할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 방사능 폐기물의 처리 방법도 확립되지 않은 채, 지금까지 54 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설치되어 왔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과거의 비극을 배우지 않고, 굳이 원자력의 위험에 눈을 감고 원전 건설을 용인해 온 것을 의미합니다.

2012 년 5 월에 열린 일본 성공회 제 59 (정기) 총회에서는 “원전없는 세상을 요구하며 -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일본 성공회의 입장 -”라는 의안이 주교회에서 제출되어 결의되었습니다. 그 결의문의 마지막은, “우리는 교파·종파를 넘어 연대하고, 원자력 발전소 자체를 즉시 철폐하고, 국가의 에너지 정책을 대체 에너지 이용 기술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를 위해, 편의, 편안함을 추구해 온 우리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전환 할 것을 결의합니다. 고통과 어려움을 안고 있는 사람들과 아픔을 나누고 배우고, 서로 서로 지지하며 사는 세계를 목표로 합니다.”고 끝내고 있습니다.

일본 성공회 상위원회에서는 상기 활동 방침과 총회 결의에 나타난 활동을 수행하는 “원전과 방사능에 관한 특별 프로젝트”의 설치를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인 활동 내용 검토는 앞으로이지만, “특별한 프로젝트”는 후쿠시마 현에 거점을 두고 아이들을 위한 재생 프로그램을 비롯해, 피난 주민에 대한 지원, 방사능에 관한 계몽 활동, 피해 상황 조사, 홍보등 광범위한 활동을 다른 교파, 다른 단체와 협력·연계하면서 해나가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 활동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꾼을 양성하면서 이 일을 계속하고 조금이라도 일본 성공회로서의 책임을 완수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골든 워크에 가자! 무로네랜드

5 월 3-4 일, 외국인를 부모로 두고 있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캠프 “무로네랜드 2”를 개최했습니다. 이 캠프는, 재정적인 문제등 여러가지 사정으로 자신의 아이들을 멀리 놀러 보내지 못하는 엄마들에 대한, 응원의 캠프이기도 합니다. (작년 여름에 간 “무로네란도 1”은 뉴스레터 14 호를 참조하십시오.)

센다이시, 타가쵸시, 이시노마키시, 히가시마쓰시마시에 사는 초등학교생부터 고등학생까지의 어린이 20 명이 무로네 성 나다나엘 교회에 모였습니다. 바베큐를 하거나 가족에게 기념품 만들기를 하고, 놀 때에는 힘껏 놀고, 아침이나 저녁 예배때 심각하게 기도했습니다. 참가자중 일부는 첫 대면하는 아이도 있었지만, 서서히 긴장도 풀려, "다음 무로네란도 언제 하는거야?"라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2 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무로네 성 나다나엘 교회와 그 주변까지 아이들의 건강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가마이시시 / 꽃놀이회에서 벚꽃을 만끽

4 월 하순, 가마이시에서는 많은 가설 주택에서 다양한 스타일의 꽃놀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가마이시 베이스 스탬프는, 각 자치회 나 지역의 자원 봉사 그룹이 주최한 파티를 돕거나 NPO 법인 카리타스 가마이시등의 지원 단체와 각 지역의 사회 복지 협의회와 협력하여 꽃놀이회를 개최했습니다.

공원에 테이블을 내놓고 맛있는 도시락을 둘러싼 모임도 있고, 벚꽃이 피어 있는데 눈에 내려 서둘러 실내에서 열린 모임도있고, 현지의 민요 보존회의 여러분의 공연과 떡, 가라오케 대회를 치르는 모임도, 어디든지 참가자의 미소로 가득했습니다. 연휴로 아이들의 모습도 있어, 세대를 넘은 교류의 장이 된 것 같습니다. 성공회 자원 봉사자 여러분의 건더기 가득한 수제 된장국도 대호평이었습니다.



■신지 마을 / 퍼지는 자원 봉사자와의 관계

매월 많은 분들이 자원 봉사에 함께합니다. 안에는 특기를 살려, 지압 마사지와 이발 서비스를 실시하고, 댄스 교실을 열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대략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이 이벤트를 신지의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 번뿐만 아니라 여러번 방문해 때로는 새로운 사람도 데리고 오는 자원 봉사자는 한결같이 “정말 와서 좋았다”고 내방 감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지 마을을 방문하는 분은 먼저 반드시 '순례 코스'를 안내합니다. 여행 가이드 역을 피해자 자신이 흔쾌히 승낙 “당일 무슨 일이 일어났고, 무엇을 경험했고, 무엇을 목격했는지”를 말해줍니다. 활동 참여와 병용해, 이재민의 마음의 교류가 반드시 마음에 강하게 남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걸어 가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가설지원

- 꽃구경 모임 / (가마이시)
- 요리를 즐기는 모임 / (가마이시)

성공회의 자원 봉사자가 선생님이 되어, 딸기 큰 복을 만들었습니다! 전 자 레 인 지 를 사 용 한 간 단 한 메뉴에서, 찹쌀 가루를 사용한 떡에 딸기와 팥을 감싸, 마치 과자 장인이 만든 것 같은 잘 만들어진 딸기 큰 복이 완성되었습니다. 학교가 휴일로 위해 밖에서 놀고 있던 아이들에게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 담화실 프로그램 / (가마이시)
- 향기 봉투 만들기를 즐기는 모임 / (가마이시)
- 노래방 / (가마이시)
- ▲장보기 버스 투어 / (나토리시)
- ◆훗코리카페 / (이와키시)



봄 방학 동안, 현지 아이들이 카페를 돕기 위해서 주었습니다. 사려 깊은 마사지를 하거나, 치어리딩을 선보였다거나, 즐거운 시간을 제공 주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훗코리카페에 요리를 가지고 와서, 즐길 수도 있습니다. 코리카페가 지역 주민의 손에 의해 풍부한 교제의 장으로 활용 되고 있습니다.

- ◆햏코나 (오차회) / 신지

- ◆햏 마사지 / 신지

그 외에도 ... 체조 프로그램 하이쿠 즐기는 모임, 핸드폰 줄 제작을 즐기는 모임, 지압 마사지 등

외국인 지원

- ▲홈 헬퍼 2 급 자격증 취득 강좌 / 이시노마키
- ▲개별 지원 (어린이 학습 지원, 간행물의 해설, 직업 소개소 등 동행,기타)/이시노마키시,다카쵸, 샌다이
- ▲일본어 교실, 영어 강사 계발 세션 / 샌다이
- 무로네 랜드 2 / 이치노세키시

장애자 지원

- ▲방문 / 샌다이 (마도카) 게센누마 (히마와리)

기타

- ◆유치원 도움 / 후쿠시마 현내 여러 유치원
- ★각지에서 방문자, 자원 봉사자와 함께 피해 지역 순례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기타 여러현에 있어서 활동을 나타냅니다. 지면 사정상 게재되어 있지 않은 활동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기반의 블로그를 참조하십시오.

홈페이지 : <http://www.nskk.org/walk/>

칼럼

그날 그때, 그 사람.

⑦뿌려진 씨앗

후쿠시마 현 신지 마을에서는, 이소야마 성 요한 교회가 오랜 세월을 걸쳐 지역 주민에게 사랑 받아 왔습니다. 신도가 아닌 사람으로부터도 "예전에는 아이들이 잘 교회에 모였다. 굴이 나 초콜릿을 받고 기뻐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당일 밤에도 이 교회에 피난해 구조를 기다리면서 밤을 새운 분들이있었습니다. 이와테현 이치노세키시의 무로네 성 나다나엘 교회에서는 직원이 체류하고있을 때 이웃 아이들이 놀러 왔었습니다. 어느 날, 기독교인이 아닌 초등학교 여아가 "응,기도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가서 가족과 어린이를 위한 기도를 함께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걷자! 프로젝트"가 재해지에서 만난 분들의 대부분은, 성공회 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어릴 때 교회에 모여 공부를 했다"거나 "매년 저기 교회에서 캠프가 있어, 학생들이 와서 동네 아이들과 잘 놀아 줬다"등 지금까지 기독교, 성공회와 접한 경험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토호쿠에서의 선교에서 선인들이 뿌린 씨앗의 싹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2013 年 5 月 샌다이 지역 베이스 직원)



함께걷자! 프로젝트 소식지 제 21 호 2013 년 6 월 1 일 발행

「함께걷자! 프로젝트」사무국

OPEN

월~금 10:00~17:00

CLOSE

토·일·축

〒980-0830 미야기현 샌다이시 아오바구 고쿠분쵸 3-4-5 크라이스 빌딩 2 층

TEL : 022-265-5221

FAX : 022-748-5321

E-mail : walk@nskk.org

web : <http://www.nskk.org/walk/>

현금을 보내 주시길 경우는 이쪽의 계좌로 부탁드립니다 : 우체국 00120-0-78536 (예금주 일본 성공회)